

대세배우 송강 “만찐남? 과분... ‘심쿰’ 연기 고민”

완벽한 비주얼에 웹툰 속 매력남 표현 잘해

“만찐남” 보다는 기대되는 배우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좋아하면 울리는’ (연출 이나정)에서 황선오 역할로 열연한 배우 송강은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갖고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지난 22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좋아하면 울리는’ 은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좋알람’ 앱이 개발되고, 알람을 통해서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세 남녀의 투명도 100% 로맨스를 그린 이야기다. 송강은 황선오 역할을 맡아 조조(김소현) 분에게 다정한 남자 친구로서 매력을 발산했다. 완벽한 비주얼은 물론 웹툰 속 매력남을 잘 표현하면서 ‘만찐남’ ‘얼굴천재’ 라는 반응과 함께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호 선배가 볼모델이 됐다. 선배님이 먼저 다가와주셔서 토닥토닥해 주면서 다정하게 대해주셨다. 연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 부분과 사람에 대해 많이 알려주신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인사의 중요성도 말해주셨다. 내가 다른 고민을 털어놔도 다 조언을 해주시더라. 정말 반했다. 너무 좋은 선배였다. 어떻게 해야 연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뉴스1

▶ ‘좋아하면 울리는’ 을 통해 차운우를 잇는 ‘만찐남’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그건 내게 너무 과분한 표현인 것 같다. 요즘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서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주라는 표현을 듣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 900대1 경쟁률을 뚫고 ‘좋아하면 울리는’ 의 주인공이 됐는데.

- 내가 내성적이어서 너무 많이 떨었는데 감독님이 워낙 편하게 해줘서 내 자신을 다 보여드리고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예 안 정해지고 자유대본 현장대본으로 오디션을 봤다. 그때까지는 해역이 역할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봤다. 누가 봐도 벤츠남이지 않나. 내가 생각할 때 벤츠남이다. 다정하고 배려해주고 그런 면이 좋아서 해역이 역할을 바랐다. 선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 직진남인 것 같다.

▶ 첫 주연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오디션 합격까지는 열렬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이 맞나 싶었는데 그 무게감이 느껴졌다. 대본 리딩을 하면서 처음으로 앞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져서 부담감과 책임감이 컸다.

▶ 김소현과의 호흡은 어땠나.

- 학생 때부터 TV로만 보던 선배였다.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아무래도 선배니까 내 연기가 딱없이 부족해보일 것 같았다. 되게 어려운 신을 짚고 나면 꼭 연락을 주고 응원해줬다. 그때부터 더 자유롭게 했다. 선배이다보니 나보다 많은 면에서 잘 알았고 촬영할 때 큰 도움이 됐다. 너무 고맙다.

▶ 처음부터 연기가 꿈이 었나.

- 건축, 인테리어 분야를 좋아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었는데 공부의 장벽이 있더라. ‘타이타닉’ 을 보고 디캐 프리오가 어떻게 저런 눈빛으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연기 전공을 하고 소속사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연기분야로 들어오게 됐다.

▶ 늦게 연기를 시작 했는데 조급함은 없었나.

- 되게 많았다. 항상 연기를 하면서 ‘2년만 젊으면, 3년만 젊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3년만 젊었으면 지금의 조급함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소속사 (김종도 대표)님이 배우는 수명이 길어서 지금 잘 때도 너무 들뜨지 말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덕에 조급함도 많이 없어졌다.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것 너무 좋다. 그때의 풋풋함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계속 해보고 싶다. ‘좋알람’ 찍으면서 성인보다는 교복연기할 때가 좋더라.

▶ 볼모델이 있다.
- 볼모델이 생겼다. ‘악마’ 정



‘32kg 뺀’ 유재환 “40kg 감량 목표...가수 유엘로 새 시작”



작곡가 유재환이 32kg를 감량한 후 훈훈해진 외모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재환은 26일 오전 뉴스1에 “오전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실 줄 몰랐다”라며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

하다”고 말했다.

그는 “살이 빠지고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예전에 자격지심 가득 했던 마음이 살이 빠지면서 사라진 것 같고, 너무 좋다”고 웃었다.

유재환은 다이어트 비결에 대해서 “저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고, 현미밥 위주의 식단으로 배가 고프지 않은 다이어트였다” 라고 말했다.

유재환은 32kg를 감량한 이후에도 꾸준히 체중 관리를 할 예정이다. 그는 “이제까지 32kg를 감량했고 40kg까지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며 “40kg를 감량하면 65kg가 된다. 마른 몸으로 살아 보고 싶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유재환은 또 “이제 유재환에서 가수 유엘로 돌아가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할 것 같고, 유엘로 오는 11월말 음원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재환은 “새로운 가수의 새로운 음악이 나올 텐데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살이 빠져서 다시 시작된 나도 그 음악에 포함돼 있을 것이니, 기대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

이동건, 미드 원작 ‘레버리지’ 확정...최고 사기 전략가 역할

오는 10월13일 첫 방송...천재적인 두뇌 플레이

배우 이동건이 TV조선 드라마 ‘레버리지:사기조작단’ 이태준役に 캐스팅됐다.

오는 10월13일 처음 방송되는 ‘레버리지:사기조작단’ (연출 남기훈/극본 민지형)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보험 조사관에서 최고의 사기 전략가로 다시 태어난 태준(이동건 분)이 범망 위에서 노는 진짜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모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기에는 사기로 갈아주는 본격 정의구현 케 이퍼 드라마이다.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동명 원작 미

드 ‘레버리지(LEVERAGE)’의 리메이크작으로 원작은 미국 TNT 채널에서 시즌5까지 방영됐으며, 일렉트릭 엔터테인먼트의 딘 데블린과 더불어, 존 로저스 크리스다우니가 제작했다.

이동건은 극 중 원리원칙 주의자인 엘리트 보험 조사관에서 전문 사기팀의 리더로 거듭나는 이태준 역을 맡았다. 이태준은 뛰어난 두뇌와 통찰력으로 모든 트릭을 꿰뚫으며 한 때 사기꾼들의 지승사자로 통했던 인물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은 후 진짜 나쁜 놈을 잡기 위해 한 때 자신의 손으로 잡아넣었던 각 분야 최고의 선



수들을 모아 최고의 사기팀을 만들어 진정한 ‘정의구현’ 실현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동건은 최근 ‘단, 하나의 사랑’에서 지강우 역을 맡아 소

중한 연인을 잃은 애절함부터 발레단 예술감독의 프로페셔널 모습까지 캐릭터의 양면성을 섬세하게 소화해 호평을 받았다. 이에 쉴 틈 없는 열일 행보를 이어가는 이동건이 ‘레버리지’를 통해 선보일 천재적인 두뇌 플레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뉴스1

‘변신’ 76만↑ 5일 연속 1위...‘곤지암’ 이후 첫 공포 흥행작

8월 극장가의 흥행 북풍 ‘변신’이 개봉주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명실상부 한국 공포 흥행 영화의 탄생이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변신’은 지난 26일 23만24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76만9636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이로써 ‘변신’은 개봉 이후 5일동안 단 하루도 경쟁작에 1위를 내주지 않고 개봉주에만 관객수 75만5089명을 동원,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좌

석 판매율 1위 기록을 썼다.

또한 ‘변신’은 지난 2018년 3월 개봉한 ‘곤지암’ 이후 처음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한 한국 공포 영화가 됐다. 현재까지의 추이대로라면 ‘변신’은 금주 내 1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 기록 역시 ‘곤지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의 첫 기록이다.

한편 ‘변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가족 안에 숨어들며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을 그린 공포 스릴러 영화다.



뉴스1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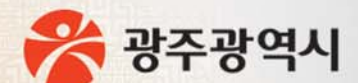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